

# 서평 : 김태준 — 운동으로서의 국문학 연구

김대중\*

1. 김태준을 보는 시각
2. 총체적 인식에의 지향
3. 한문학 연구 및 총론적인 글들 개관
4. 김태준의 다산 연구
5. 비판적 자기 인식
6. 저널리즘과의 관계 문제
7. 향후 전망

## 1. 김태준을 보는 시각

국문학 연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연구사에 대한 ‘회고’가 필요하다. ‘회고’는 단순한 돌아봄이 아니다. 국문학 연구를 추동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가? 국문학 연구가 감당한 시대사적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그 문제의식과 시대사적 과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문학 연구는 어떤 가능성을 획득했는가? 그 가능성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거나 약화시켰는가? 시대 현실이 바뀌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중요한 문제의식이 적절히 계승되지 못했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반성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모색을 하는 것이 곧 ‘연구사적 회고’일 터이다.

본 서평은 이런 반성적 시각에서 김태준을 읽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서평은 해당 책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논평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해당

책 및 그 저자는 논평의 ‘대상’이 된다. 본 서평은 이와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주지하다시피 김태준은 조운제와 더불어 형성기 국문학 연구의 중요한 축을 이룬 인물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김태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동안 축적되어 온 무수한 선행 연구들 중 하나를 읽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형성기로 소급해 들어감으로써 오늘날의 국문학 연구에 대한 성찰적 거리를 확보하는 행위가 된다. 김태준은 오늘날의 국문학 연구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 속에서 본 서평은 김태준에 대한 ‘문제 제기적 독법’ 내지 ‘자기반성적 독법’을 취하고자 한다.

검토할 텍스트는 『김태준 문학사론 선집』(정해림 편, 현대실학사, 1997)이다.<sup>1)</sup> 이 책은 국문학 및 역사에 대한 김태준의 글들을 가려 뽑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유일한 김태준 선집이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증보 조선 소설사’, 2부는 ‘조선 문학사론’, 3부는 ‘조선 역사론’, 4부는 ‘가요론’이다. 1부에 수록된 글은 김태준의 대표작인 『증보 조선소설사』이다. 2부 이하에는 김태준이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글들이 실려 있다. 결국 『김태준 문학사론 선집』의 편자는 김태준의 학문 세계를 크게 문학 연구와 역사 연구로 양분한 다음, 문학 연구를 다시 소설 연구, 시가 연구, 그 밖의 문학사 관련 연구로 세분한 셈이다. 기실 김태준은 한국 고전 소설사와 한문학사를 최초로 체계화했을 뿐 아니라, 고전 시가에 대한 연구 또한 폭넓게 했다. 이 선집은 김태준의 이런 다양한 학적 관심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태준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고대사 연구를 다수 남겼는데, 이 선집은 그 또한 빠뜨리지 않았다.

이 중에서 필자는 한문학 연구 및 총론적 성격의 글들을 다루기로 한다. 『증보 조선소설사』는 기왕에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므로, 이번 서평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면면을 조망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지적대로,<sup>2)</sup> 김태준의 한문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조선한문학사』 보다는 그 후속 연구들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3)</sup>

1) 앞으로 이 책을 인용할 때에는 면수만 밝힌다.

2) 박희병, 「김태준의 국문학연구」 상(『민족문학사연구』 제3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267~268면 참조.

3) 그렇다고 해서 『조선한문학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조선한문학사』의 특

## 2. 총체적 인식에의 지향

물론 김태준의 시가 연구 또한 새로운 조망을 요할 터이다. 그러나 한문학 전공자인 필자에게 그런 작업은 능력 밖의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부터 김태준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한다. 한문학이 국문학 연구의 제도적 틀 내부로 수렴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의 일이다. 그런데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에 이미 국문학 내 한문학의 위치가 중요한 쟁점이었다.<sup>4)</sup> 김태준은 비록 국문 문학과 한문학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한문학 역시 국문학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한문학에 대한 김태준의 양가적 인식은, 한문학과 국문 문학의 종합이 아직 불철저한 데 따른 과도기적 면모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양가적 인식은 고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고 판단되는바, 오히려 일정하게 재평가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잠시 뒤로 미룬다.

김태준은 아직 국문학 연구가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전에, 국문 문학과 한문학이 통합된 국문학 체계가 정립되기 전에, 그 자신이 한문학 전통에 대한 비판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국문 문학과 한문학 모두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를 남겼다. 반면 필자 세대의 한문학 연구자들은 이미 한문학이 국문학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은 뒤에 교육 받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학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국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한문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결국 한문학이 국문학에 속하는지 여부는 이제 세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역설적이게도 한문학은 이제 특정 전공 영역으로 고립되어 여타 국문학 분야와의 폭넓은 의미 연관을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정과 연구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심경호, 「천태산인의 『조선한문학사』 변증」(『한문교육연구』 제1호, 한국한문교육연구회, 1986); 박희병, 앞의 논문;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 양상과 특성」(서울대 박사논문, 1998) 참조.

4) 국문학과 한문학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임형택, 「한국문학의 인식체계」(『한국문학사의 체계와 논리』, 창작과비평사, 2002); 임형택, 「한국근대의 '국문학'과 문학사」(『민족문학사연구』 제46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참조.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다른 분야에 비해 한문학 연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영역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비록 그렇지만 김태준은 필자와 같은 한문학 전공자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애초에 선학들이 한문학을 국문학의 주요 분야로 파악했던 것은, 국문 문학과 한문학의 단절을 극복하고 국문학의 총체성에 육박하기 위해서였다. 이 지점에까지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 한문학 연구가 국문학 내 여타 영역과의 폭넓은 의미 연관에 대한 고민 없이 고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전도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김태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문학사 서술’ 내지 ‘문학사적 시각’에 대한 것이다. 김태준은 고전 소설, 한문학, 고전 시가 세 분야에 대한 문학사적 연구를 남겼다. 물론 그 연구들 모두 그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조선한문학사』는 주요 작가와 작품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서 완전한 문학사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비록 그렇지만 김태준 이후로 한 연구자의 일관된 문학사관에 입각한 한문학사는 아직 서술된 바 없다.

물론 한문학사 서술이 가능한 학적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마다 다를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문학 연구는 양적으로 그리고 소재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문학사적 시좌가 좁아지거나 불분명해진 것은 아닌가? 따라서 현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연구의 양적 축적보다는 ‘사관(史觀)’의 정립이 아닌가 한다.

사실 문학사 서술은 굉장히 큰 문제이므로, 필자가 경솔하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꼭 한문학사를 직접 서술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한문학사 서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역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닌가 한다. 최근 한문학 연구는 시대별·장르별·작가별로 세분화·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 덕분에 한문학 연구는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의 파편화, 문학사적 인식의 약화 등이 뒤따르지 않았나 한다. 앞으로 한문학 연구에서는, 그 세분화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총체적 인식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

라 전망된다. 따라서 그 종합을 위한 역사관 내지 이론적 시각의 정립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듯하다.

그런데 문학사적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성찰은 잘못하면 연구의 실상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범위를 좁혀서 김태준의 글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들기로 한다.

### 3. 한문학 연구 및 총론적인 글들 개관

『김태준 문학사론 선집』에 실린 글 중 한문학 및 국문학사 일반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글 제목, 발표지, 발표 시기를 병기한다.

-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 『조선일보』, 1933. 5. 1.~5. 2.
- 『고전섭렵 수감(隨感)』, 『동아일보』, 1934. 2. 9.~2. 16.(7회 연재)
- 『『조선한문학사』 방법론』, 『학등』 6호, 1934. 5.
- 『조선 문학의 역사성』, 『조선일보』, 1934. 10. 27.~11. 2.(5회 연재)
-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 『조선중앙일보』, 1935. 7. 25.~8. 16.(10회 연재)
- 『야담의 기원에 대하여』, 『비판』 4권 3호, 1936. 4.
- 『조선 문학의 특질』, 『인문평론』 2권 6호, 1940. 6.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는 고전 연구의 현실적 가치와 사회학적 접근을 강조한 글로, 김태준의 학적 지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전섭렵 수감(隨感)』은 고전 연구와 관련된 잡다한 내용을 담은 글로, 기초적인 자료의 종류와 소장 현황, 실학과 지식인들에 대한 개설적인 소개, ‘민족상’을 선형적인 것처럼 상정하는 관점의 허구성, 고전 연구의 시대적 의의, 답사 여행의 경과 및 여행 소감, 대구의 어느 장서가의 장서 목록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조선한문학사』 방법론』은 자신의 저서 『조선한문학사』에 대한 자평(自評)이다. 『조선 문학의 역사성』은 삼국시대부터 김태준 동시대까지의 문학을 시기별로 개관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탐구한 글이

다.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은 다산의 생애, 현실 비판적 시(詩), 사회사상 등을 두루 다룬 연구이다. 『야담의 기원에 대하여』는 조선후기 강담사(講談師)의 존재를 학계에 처음 알린 글이다. 『조선 문학의 특질』은 삼국시대 문학의 특징을 논한 글이다.

이상 7편의 글 중 어느 하나도 김태준의 학적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지만, 다산 탄생 250주년이 되는 올해에 단연 주목되는 것은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이다. 제목부터 도전적인 이 글은 1935년에 발표되었다. 이때는 곧 다산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따라서 김태준의 글은 2012년의 상황과 병치됨으로써 올해의 각종 다산 특집 기념사업 및 학술 행사를 비추어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을 검토하기로 한다.

#### 4. 김태준의 다산 연구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은 다음과 같이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다산 연구의 의의
2. 정다산의 생애
3. 한시에 발로된 인도주의적 경향
4. 신구 전환기의 다산의 사상적 이중생활
5. 정다산의 토지 공유론
6. 정다산의 토지 분배론
7. 정다산의 계(契) 연구
8. 결어

이 중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은 제3장부터 7장까지다. ‘한시에 발로된 인도주의적 경향은 다산의 현실 비판적 시 세계를 다룬 것이다. 거론된 작품은 『교지를 받들어 지방을 순찰하던 중 적성촌의 시골집에서 짓다』(奉旨

廉察, 到積城村舍作), 「용산의 아전」(龍山吏), 「굶주리는 백성」(飢民詩), 「남과탄」(南瓜歎) 등이다. 이들 작품은 현실주의적 문학관에 입각한 다산시 연구에서 두루 중시해온 것으로, 김태준의 연구는 그 선구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신구 전환기의 다산의 사상적 이중생활’은 천주교 문제를 다룬 것이다. 김태준은 다산이 천주교 신앙을 가졌으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천주교도가 아닌 것처럼 자처했다고 보고, 그런 ‘사상적 이중생활’은 곧 신구 교체기의 과도기적 양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런 논법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점이 적지 않다.

‘정다산의 토지 공유론’과 ‘정다산의 토지 분배론’은 『경세유표』의 「정전론」(井田論) 및 「정전의」(井田議)에 입각하여 다산의 토지제도 개혁안을 소개한 것이다. 김태준은 다산이 주장한 토지의 공동 소유, 공동 경작, 공동 부역, 공동 부세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다만 김태준은 다산의 토지제도 개혁안을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시기에 따른 내부적 변화에는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다산의 사회사상은 오히려 보수화된 측면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따라서 다산 사상 내에서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런데 김태준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다산의 개혁 사상을 다소 부조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정다산의 계 연구’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에 의거하여 조선후기 민(民)의 수탈 문제를 다룬 글이다. 김태준은 특히 계방(契房)의 폐해를 상세히 분석한 다산의 ‘정치경제가적 식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상 김태준의 다산 연구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여러 모로 주목을 요한다. 우선, 김태준의 다산 연구는 연구자의 일관된 역사철학에 의거하여 다산의 전체상에 육박하려는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태준의 연구는 다산의 문학 작품, 서학(西學)과의 관계, 사회 개혁 사상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그밖에 김태준이 ‘결어’에서 간단히 지적하고 있는 다산 사상의 여러 면면, 즉 과거제(科擧制) 비판, 형벌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 이용감(利用監) 설치의 제안, 도락적인 글쓰기

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모두 포함하면, 논의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다만 김태준이 유독 무관심한 영역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경학(經學)이다. 그 이유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의 계급론적 시각이 경학에 대한 반감을 낳은 것은 혹시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다산학에서 경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다산 경학에 대한 비판적 조망이 일부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더라도 그 중요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다산 경학에 대한 김태준의 무관심은 한편으로는 그가 견지한 역사철학의 귀결로서 그 나름의 정당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변적인 것’ 내지 ‘원리적인 것’에 대한 탐구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한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문학 사회학도 그 나름의 이론화·체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사변적인 것’ 내지 ‘원리적인 것’을 탐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태준은 이런 방향으로 자신의 사유를 발전시키지는 못한 듯하다. 또한 김태준 입장에서 경학이 설령 지배층의 관념적 학문이라 여겨졌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와 학적으로 대결해 가면서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김태준의 연구에서 이런 ‘원리적 싸움’과 ‘극복’은 생략되고, 그 결과 경학이 담당했던 사변의 영역은 손쉽게 무시된 것이 혹시 아닌가 한다. 따라서 ‘원리적인 것’에 대한 물음 속에서 김태준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후속 세대의 과제로 남는다.

물론 그렇더라도 김태준의 다산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김태준의 다산 연구를 통관하는 문제의식은 다산 문학 및 사상이 갖는 사회 역사적·시대사적 연관을 규명하는 것이다. 김태준은 역사 발전 단계설에 입각하여 다산의 시대를 봉건제 붕괴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다산의 문학과 사상을 ‘시대사적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한다. 그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역사이론은 이미 많은 비판에 직면하긴 했지만, 문학과 사상을 정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은 여전히 돋보인다. 김태준의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현실과 다산시, 그리고 다산의 개혁 사상과 시 작품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이런 구도 속에서 다산의 문학 작품과 정치 경제 사상을 일리관지하는 다산의 전체상이 탐색된다.

사실 다산의 전체상을 그리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포괄성과 체계성을 겸비한 다산 연구의 대표작으로 최익한의 『실학과와 정다산』을 들 수 있다. 여러 모로 이 책은 김태준 이후의 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익한의 다산 연구에는 문학 연구 및 문학과 사회 현실, 그리고 사회 개혁안의 연관에 대한 고찰이 빠져 있다. 그 뒤로 다산 연구는 주로 분과 학문별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를 통해 다산학의 각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심화·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다산의 총체적 모습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감이 없지 않다. 일례로 최근의 다산 연구를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연구』(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사람의무늬, 2012)는 다산의 경제론, 정치론, 정전제론(井田制論), 전부(田賦) 개혁론, 이용후생론 등을 두루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는 문학 연구가 빠져 있거니와, 각 영역에 대해 해당 전공자들이 분담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일이관지한 관점에 의해 다산의 전체상을 체계화했다고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면 김태준의 다산 연구는 오늘날의 다산 연구자들에게 ‘다산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겠다.

물론 김태준의 다산 연구는 충분한 규모와 완정한 체계성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의 논의는 다소 개설적이어서, 문학과 사상, 그리고 사회·역사·정치의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온전히 규명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같은 해에 발표된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의 빛나는 성취를 기억한다면,<sup>5)</sup> 아쉬움은 더 커진다. 결국 김태준의 변증법적·문학 사회학적·역사주의적 연구는 초기의 경직성을 극복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발전 양상이 균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태준의 다산 연구가 남겨 놓은 가능성과 한계는 후속 세대가 보완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몫으로 남아 있다 하겠다.

김태준 이후로 다산의 현실 비판시는 특히 1970~80년대에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이제는 그다지 연구자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다산의 현실 비판시 연구는 이미 상당수가 누적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진보적 지식인’

5)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의 연구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박희병, 앞의 논문, 268~271면 참조.

상(像)에 의해 가려졌지만 오히려 재조명을 요하는 다산의 면모도 있을 터이다.

이런 방향의 연구는 다산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꼭 필요하며, 주목되는 성과 또한 없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 없이 새로운 소재를 찾으려 하는 연구 경향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한다. 하지만 김태준이 다산의 현실 비판시에 주목한 것은 그 소재적 측면에서가 아니었다. 현실 인식 내지 총체적 인식의 측면에서였다. 요컨대 김태준의 다산 연구는 오늘날의 다산 연구자들에게 ‘다산 연구의 방향 설정’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연구 방향의 설정은 다산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지금은 김태준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다산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연구 성과들을 하나로 모으면 김태준의 연구보다 진전된 ‘다산의 전체상’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총체적 인식은 단순한 양적 종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산의 다양한 면모를 통관하는 논리를 파악하고, 그 논리를 축으로 해서 다산학의 여러 영역을 둘러싼 풍부한 의미 연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투철한 역사철학 내지 ‘이론’이 꼭 필요하다. 기존의 국문학 연구에서 역사철학적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던 담론은 민족주의, 유물사관, 내재적 발전론, 민족 문화론 등이었다. 이제는 이런 담론 자체가 냉소에 부쳐지거나 망각되고 있지만, 그런 냉소와 망각이 오히려 새로운 역사철학이나 이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차단시키고, 결국 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역사철학의 부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은가 한다. 어느 이론가가 지적했다시피,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거대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론’ 혹은 ‘역사철학의 부재’는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김태준의 다산 연구에는 그 나름의 역사철학과 이론적 관점이 일리관지한다. 물론 그것이 현시점에서까지 유효성을 갖는가, 갖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갖는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기는 하나 김태준의 다산 연구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준이 다산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산 연구가 ‘시대적 의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기본 관점은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의 도입 부분인 ‘다산 연구의 의의’와 ‘정다산의 생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두 글은 비교적 짧지만, 다산 연구사에서 보기 드물게 논쟁적이고 문제적이라 판단된다.

김태준은 다산에 대한 자신의 독법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필자는 끝까지 다산을 ‘조선의 태양’으로 보지 아니하고 ‘조선의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321면)

다산을 초시대적 존재로 미화하지 않고, 조선 후기의 구체적인 사회 역사적 조건 속에 놓고 보겠다는 것이다. 다산 연구자뿐 아니라 한국학 연구자라면 누구나 유념해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

‘조선의 태양’ 운운한 것은 다산이 “지금도 후배가 의거할 조선의 태양”이라는 정인보의 상찬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에는 ‘아울러 다산론(茶山論)에 나타난 속학적(俗學的) 견해를 비판함’이란 부제(副題)가 붙어 있다. ‘속학적 견해’는 정인보 혹은 그로 대변되는 당시 국학파의 다산 연구를 겨냥한 것이다. 물론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적어도 김태준이 판단하기에는, 정인보의 다산론이 사회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다산을 이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요컨대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은 국학파의 정신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다산학의 역사주의적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김태준은 정인보의 글을 직접 인용해가며 비판하고 있는데,<sup>6)</sup> 그 비판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정인보는 다산 사상의 형성 배경을 다산 개인의 천재성과 가계(家系), 그리고 성호학파의 영향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준은, 정인보의 이런 설명은 다산 사상의 역사성에 대한 몰이해의 소산인바, 제일

6) 정인보의 해당 글은 정인보, 『위당 정인보 전집』 2(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63면 및 67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대성이라고 강조한다.

둘째, 정인보는 다산을 반계·성호와 비교하면서 시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친 미사여구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준은 “조선의 얼이 빠진 사람은 잘 알아보기 힘든 글이다. 얼마나 미문사(美文辭)라. 이 논법대로 하면 ‘태양적 존재’가 아직도 꼭 더 많아져야될 것 아닌가”(322면)라고 지적하는데, 그 어조가 신랄하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얼’은 국학파가 강조한 개념이다.

셋째, 정인보는 다산 경학의 의의를 과장했다는 것이다. 정인보는 다산이 경학을 통속화하여 민중과 공유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준은 “민중이란 뜻을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322면)라고 꼬집는다.

이상의 비판은 결국 정인보가 다산 사상의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필자는 정인보와 김태준 중 어느 한 쪽을 편들 생각은 없다. 더군다나 김태준에 의거하여 정인보의 학문세계를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또 필자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다.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김태준의 비판이 일부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을 법하다. 비록 그렇지만 김태준의 이 세 가지 비판은 여전히 중요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본 서평의 문제의식에 따라 그 논점들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김태준의 첫 번째 비판은 한 작가 내지 사상가의 문학적·사상적 배경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한문학 연구에서는 특히 연구 대상이 되는 작가의 가문, 당색, 교유 관계, 사승 관계 등을 중시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대 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해당 작가의 작품 세계나 사상이 어떻게 구축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해지지 않았는가? 물론 작가의 가문이나 교유 관계 등의 전기적 사실들은 해당 작가가 처한 시대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성과 시대성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작가의 가문 등 전기적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해당 작가의 작품을 작가의 개인적인 재능이나 인적 관계의 산물로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태준의 첫 번째 비판은 이런 견지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받아들여진다.

김태준의 두 번째 비판은 글쓰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요즘은 일반인이 알아보기 힘든 한문투의 미사여구를 남용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한 작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아무래도 연구자로서의 냉정함을 잃기 쉽다. 김태준의 두 번째 비판은 이런 견지에서 ‘과정 없는 의미부여’ 내지 ‘냉정한 평가’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김태준의 세 번째 비판은 다산에 대한 진보적 해석과 관련하여 재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다산이 경학을 민중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에 틀림없다. 사실 그간 다산 연구는 다산의 진보적인 면에 각별히 유의해왔다. 그런 연구 방향은 그 나름의 시대적 의의와 정당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과 자주독립에의 열망,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에의 열망이 다산 연구를 강하게 추동했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이런 열의가 담긴 연구를 선불리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진보적 해석은 역시 다산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해석이 옹호하려는 정치적 가치를 위해서도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김태준의 세 번째 비판은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정인보는 안재홍, 홍이섭, 최익한과 더불어 다산학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후대의 다산 연구자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건 정인보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다산의 정법 사상(政法思想)을 다산학의 핵심으로 부각시켰으며, ‘성기호설(性嗜好說)’, ‘자주지권(自主之權) 등을 다산 경학의 주요 개념으로 해석하고 다산학의 기본 구도를 경전 연구와 1표2서로 대변되는 사회개혁 사상의 통합으로 파악했는 바, 이런 시각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인보는 안재홍과 더불어 다산의 여러 저작을 수집·정리·교열하여 『여유당전서』를 처음으로 간행한 바 있다.

반면 김태준이 다산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다고 하기 힘들다. 아마도 그는 정인보에 비해 다산의 저작 전반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인보는 『여유당전서』를 교열·간행했으므로 다산의 저술 전반을 두루 파악하고 있었을 터이다. 반면 김태준은 그 스스로가 “여기

‘토지’ ‘계’만을 논한 것도 이 일면으로써 그 전표(全豹)의 일련(一鱗)을 알자는 데 지나지 못한다”(347면)라고 했다시피, 다산학 중 한정된 영역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준의 정인보 비판은 여전히 의미심장한 면이 있다. 김태준이 제기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다산 연구가 ‘시대적 의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 서거 100주년 되는 해에 김태준이 이런 비판을 한 뒤로 2012년에 학계는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이했다. 그 기념사업과 학술행사의 규모는 김태준의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념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김태준은 긴 시간차를 뛰어넘어 여전히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5. 비판적 자기 인식

‘시대적 의의’를 가져야 하는 것은 비단 다산 연구뿐이 아닐 터이다. 김태준은 정인보를 비판하기에 앞서 고전 연구자 일반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이렇게 지적한다.

학술은 학술이요 골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과 같은 곳에서는 고전 연구자는 동시에 골동 광고자, 그렇지 않으면 골동 수집자가 되기가 쉽다. 나아가 그 고물(古物)의 가진 바 시대적 가치에서 우리의 ‘생(生)에 파급한 영향’에 그 가치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소재인 고물 자체가 곧 역사인줄로만 생각하여 디오게네스처럼 고물‘통’에 농성하고 마는 것이다.(319면)

김태준은 ‘학술’과 ‘골동’을 엄밀히 구분한다. ‘학술’은 ‘시대적 가치’의 문제를 다룬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학술’이 아니라 ‘골동’이다.

이런 입장에서 김태준은, 고전을 문화 발전사상(發展史上)의 한 존재로 보지 않고 ‘소극적 관념론’으로 연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런 연구자들이 “차라리 역사 연구의 의의가 전적으로 자가의 호고벽(好古癖)의 만족적

도취와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320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고전 연구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 속에서 김태준은 다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한다.

설령 다산을 들고 말하여도 ○○몽상가적 소아들처럼 속절없이 ○○○으로써 단군·개소문·세종대왕·이순신……을 억지로 신비화시켜 이것을 자기의 왜곡된 사상 고취의 도구로 삼아 오던 것같이 여기 다시 다산이 아닌 다산, 다시 말하면 다산의 진면목을 외의(外衣)로 아름답게 화장시켜 놓은 다산이거나 그 시대적 의의를 떠난 다산의 ‘다산종(茶山宗)으로서의 다산’을 우리는 경계하며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필요한 부분에서 다산을 경양할 것이요, 필요 이외의 부분에서 다산을 양양할 것은 아니다.(320면)

다산을 비롯하여 역사적 인물의 과도한 미화와 이상화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신랄하다. 그런데 그 신랄함보다 더 주목되는 것이 있다. 김태준은 역사적 인물의 미화가 ‘왜곡된 사상 고취의 도구’라고 지적한다. 즉, 그는 고전 연구가 현시대에 작용하여 모종의 사상을 고취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지식 사회학적으로 보면, 고전 연구의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한 발언이라 해석될 직하다. 따라서 고전 연구자는 ‘가치’의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며, 고전 연구는 현재적 삶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 그러므로 고전이라 해서 모두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사적으로 필요한 부분 외에서는 다산을 양양할 필요가 없다고 김태준은 단언한다. 요컨대 고전 연구는 일종의 사상운동으로서 사회 참여적 성격을 가지며, 이런 견지에서 연구 주제와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태준은 왜 ‘왜곡’이란 말을 썼는가? 구체적으로 이 말은 당시 국학파의 역사인식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국학파가 단군, 이순신 등을 현양한 것은 민족주의 정신의 발로로 그 나름의 의의가 없지 않다. 비록 그렇지만 그 당시 국학파의 역사인식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영웅주의적 사관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엄연한 한계를 갖는다. 그렇게 해서 고취된 민족적 자긍심은 식민사관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왜곡된 자기의식’을 초래

할 위험이 크다. 김태준이 ‘왜곡’이란 말을 쓴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터이다.

요컨대 김태준은 고전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찬양한 것도 아니다.<sup>7)</sup> 고전에 대한 ‘비판적 자기 인식’을 지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비판적 시좌는 시대 현실과의 긴장 속에서 확보된다.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 『조선 문학의 역사성』, 『고전 섭렵 수감』은 김태준의 이런 학적 지향을 잘 보여준다.

### 1)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는 그 당시의 ‘조선학 연구열 인플레이션’에 일침을 가하고 현실 참여적 연구 내지 사회학적 연구의 길을 천명한 글이다. 이 글에서 김태준은 손진태 등의 조선사 연구자 및 각종 조선어학 연구단체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객관적 형편과 주체의 역량을 경솔히 생각하고 근본 문제는 ‘골발(骨拔)로 하고 주력을 지엽 문제에 집중시켜서 떠드는 것은 우리네의 조선학 연구 자체가 급박한 현실에 비추어 기회주의적 현실 도피적이라고 할 터인데 그도 너무도 경거(輕舉)가 아닐까?”(352면) 조선학 연구가 현실과 유리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기회주의적 현실도피’라는 말이 폐부를 찌른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가?

천근(淺近)하게 말하면 먹고 사는 사람인지라 하선추충(夏蟬秋蟲)의 노래와 포인냉화(飽人冷話)를 배제하고 좀더 일반인의 생활에 즉하여 연구 또는 창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조선학 연구가 현실의 조선땅에 사는 일반인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할진대 우리는 그 일반인의 진두(陳頭)에서 실천적 지도를 아니하겠거든 일반인과 호흡을 함께 하여 차라리 중으로는 현계단에 이르기까지 발전 과정을 분명히 해석하여 미래의 예측에 제공할 만한 자조(資助)가 되어야 할 것이요, 횡으로

7) 고전의 정당한 계승에 대한 김태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희병, 앞의 논문, 270~275면; 류준필, 앞의 논문, 169~227면 참조.

는 세계적 학문으로서 연락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서만 학문의 생명도 있나니 (….) 동지여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역전하여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본거선장(本居宣長)·허무진연(賀茂眞淵)·중 계충(契沖)을 모방하여 야 옳으냐?(352~353면)

김태준은 ‘조선땅에 사는 일반인의 행복’을 위한 연구를 강조한다. 어쩌면 지당해 보일 수도 있는 이 말은 여전히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 ‘무엇을 위한 연구인가?’ 이것이 김태준이 던지고 있는 물음이다. 연구의 전문성을 추구하다보면 희석되기 쉬운 문제의식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스스로 예민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연구자의 연구는 기회주의적·현실도피적 학문으로 귀착된다고 김태준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란 말을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다소 모호하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역사관에 따라 그 함의는 달라질 수 있다. 김태준이 말한 ‘일반인’은 곧 민중을 뜻하는 듯하다. 『춘향전』 연구를 비롯하여 그의 여러 연구들이 민중주의적 지향을 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김태준 이후로도 한문학 연구에서 민중주의적 시각은 야담 연구, 서사한시 연구, 실학 연구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런 연구를 뒷받침하던 민족문학론의 퇴조와 더불어 최근 한문학 연구에서는 민중의 존재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희미해지거나 실종되지 않았나 한다. 그 대신 제왕학(帝王學), 왕실문화, 상층 사대부의 문화, 문화사 연구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중적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를 거친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최근 한문학 연구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반적으로 민중적 삶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듯하다.

현실 참여적 학문이라 하면 극단적인 찬사와 비난을 받기 쉽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문적 엄정성은 잠시 뒤로 해도 된다고 여기기 쉽다. 이와 달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실 참여적 학문은 학문적 엄밀성을 방기한 것이며 결국 학문이 아니라고 치부하기 쉽다. 기실 김태준의 한문학 연구에도 사실 관계에 있어서 다소 부정확하거나 미비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것은 대체로 그 당시의 연구 수준에서 불가피했던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태준이 현실 참여를 표방하느라 학적 엄밀성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김태준은 그 당시로서는 누구보다도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여, 그 토대 위에서 문학사적 연구를 하고 자기 나름의 논리를 구축했으며, 그 자신이 직접 고적 답사를 하거나 문헌 목록을 정리하기도 했다. 요컨대 김태준은, 현실 참여적 학문이 학적 엄밀성의 추구하고 반대된다는 편견을 깨는 좋은 사례가 된다. 오히려 방대하고 면밀한 기초 조사에 현실 참여적 자세가 수반될 때 비로소 그 연구는 학적 토대 위에 역사적·시대적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사실 한문학 연구에서 투철한 역사의식 내지 사회의식과 엄정한 기초 조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의 한문학 연구에서는 역사철학적 물음을 괄호 속에 넣은 채 자료에 즉자적으로 천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다각적인 비판을 통과한 뒤로 새로운 역사관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뒤따르는 대신, 오히려 역사적 방향성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약화되거나 소거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한다. 김태준은 이런 상황을 돌아보게 한다.

김태준이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조선학 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것이다. 역사주의적 접근이 결여된 조선학 연구는 결국 전통에 대한 미화로 귀결되므로 논의의 보편성이 떨어진다. 반면 김태준은 보편성을 강조한다. 그 보편성은 ‘세계적 학문으로서 연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 발전 법칙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김태준은 조선적 현실을 중시한다. 김태준은 조선의 민중과 함께 호흡하여 조선 문화의 발전과정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의 서두에서 서양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을 비판하면서 “코 큰 양인(洋人)의 것이면 효빈(效顰)하기를 인색치 아니하여 자아를 망각하기까지 되었다”(350면)라고 한 바 있다. 요컨대 김태준은 조선적 현실에 입각하여 세계사적 보편성과 조선적 특수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김태준이 전제로 하고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가능

하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염두에 두더라도, 김태준은 맹목적인 서구화에 대한 비판 의식 속에서 조선학을 중시하는 동시에 조선학 연구가 자기만족적인 데로 빠지지 않고 보편성을 확보하는 길을 모색했는바, 이 점은 여전히 주목을 요한다고 생각된다. 김태준에 따르면, 이렇게 보편성과 특수성이 중형을 이루는 고전 연구는 ‘미래의 예측’에 도움이 된다. 당대 현실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일 터이다. 즉, 조선 민중과 호흡을 함께할 때 고전 연구는 미래적 전망을 갖는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김태준은 1930년대 고전 부흥론에 적극 개입하면서 세계사적 보편성과 조선적 특수성에 대한 변증법적 논리를 구축했다.<sup>8)</sup> 1930년대에 고전 부흥론이 열기를 띤 것은 카프의 붕괴, 전향론의 출현, 일제의 사상 탄압, 사상운동에 있어서 근대적 지향의 퇴조 등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런 시대 여건은 지금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지금은 현실주의 문학과 민족문학론이 그 힘을 잃고 ‘근대적인 것’이 냉소에 부쳐지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문학 연구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1930년대와는 반대로 최근의 한문학 연구는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지지 않았나 한다.

최근 한문학 연구에서 ‘보편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 문학의 영향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담론이다. 이런 관점에서의 연구를 통해, 종래에는 막연하게 조선 내에서의 창안이나 발전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실은 중국 문학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 문학과 유사성 내지 연관성이 ‘보편성’을 구현한다. 두 번째는 한국학의 세계화 구호이다. 여기서는 ‘세계화’가 ‘보편성’을 구현한다. 물론 ‘세계화’의 현실적 귀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할 듯하다. 세 번째는 문화사적 담론이다. 이 담론은 내재적 발전론의 빈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내재적 발전론과는 반대로 역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선 사람도 지금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다채로운 소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소재들은 다른 매체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여기서는 탈역사화된 문화 현상이 ‘보편성’을

8) 류준필, 앞의 논문, 169~174면 참조.

구현한다.

요컨대 이 세 가지 ‘보편성’은 각기 다른 함의를 갖지만, 모두 조선적 현실과 고전 연구의 역사성을 괄호 속에 넣고 고전 문학을 ‘보편성’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김태준이 변증법적으로 사유한 ‘보편성’은 소재적인 것도 아니고 탈역사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원리적인 것이며, 역사적 방향성을 가지며, 그러면서도 조선 현실에 밀착해 있다. 동아시아 담론의 긍정적 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화사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해가며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학의 세계화가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특수’에 대한 김태준의 변증법적 사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즉,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맞게 그 사유의 면면을 재해석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하겠다.

또 한 가지 김태준의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편성이 결여된 한국학 연구가 어떤 폭력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다. 김태준은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가모노 마부치(賀茂眞淵), 게이추우(契沖) 등 일본의 국학자들을 반면교사로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이들을 ‘명치유신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우는 것은 ‘역행’ 곧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김태준은 일본 국학파의 국가주의적 귀결을 거울로 삼아, 조선학이 보편성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상실할 때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한 셈이다.

물론 일본의 국가주의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를 등치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태준의 통찰은 더 빛난다. 그는 조선의 현실, 조선의 주체적 대응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이 폐쇄적으로 머물 경우에 초래될 위험을 함께 성찰했던 것이다. 식민지 현실에서 이런 복합적인 내부성찰을 해 나간 것이 주목된다.

끝으로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는 조선학 연구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다. 사실 김태준의 사상적·역사철학적 입각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좌에서 자각적인

문제 설정을 하고 있는 고전 연구자가 그리 많다고는 하기 힘들지 않은가 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김태준의 이런 면모는 현시점에서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하겠다.

물론 김태준의 글은 다소 거칠게 느껴지는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만은 강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나 배부르니 천하 사람이야 아무렇게나 되든지 나는 모른다는 주의냐”(351면)라는 일갈은 여전히 폐부를 찌른다. 한국학 연구가 시대적 의의를 갖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런 지적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결국 김태준이 강조한 ‘조선땅에 사는 일반인의 행복’을 위한 조선학은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비판으로서의 조선학에 다름 아니다. 김태준이 다산 연구에서 ‘토지 공유론’을 특별히 부각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터이다. 부(富)의 불평등이 극단화된 현시대에,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과 대안적 모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세계 현실 속에서 김태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꼭 특정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문제가 아닐 터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묵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고전 문학 연구는 어떤 문제와 씨름하여 어떤 통찰력을 보여줄 것인가? 현시점에서 김태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 2) 「조선 문학의 역사성」과 「고전 섭렵 수감」

「조선 문학의 역사성」은 한국 문학의 전통을 부정한 일군의 문인들을 비판하여 고전 문학의 역사성을 논구한 글이다. 이 글에서 김태준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시대부터 그의 동시대 문학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전개를 개관한다. 그 후반부에서 김태준은 이광수, 최남선, 주요한, 김인서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지적을 한다.

이들은 모두 일본 내지의 유학생으로서 조선 종래의 문학을 토구(討究)함보다는 물론 구미·일본 내지의 당시 문학에서 흡수한 문학적 영향을 가지고 창작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은 국학적 연구 및 계승과 명치문학적 과정

을 밟지 못한 그대로 이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기성문단의 건설을 보았다.(245면)

요컨대 김태준은 전통과 근대의 단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태준에게 고전 문학 연구는 고전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통해 그 단절을 극복하고 창의적 모색을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이런 생각은 『고전 섭렵 수감』에서는 이렇게 변주된다.

갑오 개화 후 선진국가의 찬연한 문명에 안광을 빼앗긴 선배들은 일로 구미 문화의 흠취에 골몰하여 다른 곳에 결눈을 빌리지 않고 직진하였던 것이다.

폐허화하려는 현실은 지나간 조선의 죄라는 감정에서 외국 문명의 급진적 기세에서 일절 ‘조선적’이라면 거절하여버렸다. 조선의 고전 같은 것은 일문의 가치가 없는 것같이 생각하였다. ‘조선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아무 죄가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1도 조선 2도 조선’ 하고 ‘조선’에 농성하는 것도 금물이지만 우리는 지나간 ‘조선’에의 정당한 인식과 계승이 없이 곧 그를 토대로 함이 없이 직진하는 것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262~263면)

김태준의 이런 발언은 전통의 무시와 미화 양극단을 넘어선 것으로, ‘고전의 정당한 인식과 계승’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김태준의 발언이 당대 문학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띠는 것이다. 사실 김태준은 문학사적 접근에 특장이 있었던 인물로, 그의 소설사 연구를 비롯하여 한문학·시가 등에 대한 연구 중에는 과거로부터 자신의 동시대까지를 통관한 것이 적지 않다. 김태준의 문학사 연구의 귀착점은 그의 동시대가 되는 셈이다. 고전의 정당한 인식과 계승에 대한 그의 논의는 동시대 작가들의 빈약한 고전적 소양 및 그 문제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개진된 것이다. 따라서 김태준의 고전 연구는 좁은 의미의 고전 연구에 머물지 않고, 동시대 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비평적 개입이 된다. 전통과 근대의 단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본인의 생

각을 스스로 실천한 결과라 이를 만하다.

김태준의 이런 면모는 이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김태준 이후로 고전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태준에 비해 다소 왜소해진 것은 아닌가? 김태준은 문학사적 연구가 동시대와 비평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기억됨 직하다.

또한 「고전 섭렵 수감」에는 고전문학 연구의 사회사적 접근을 강조한 대목이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글들과 그 취지는 비슷하나, 따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우선 각 시대의 경제의 분석에 출발하여 각 시대의 특징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 진전의 계단을 공통된 인류 발전의 사적(史的) 법칙에서 구하되 조선적 환경에서 배태되어 성장된 문화적 특징을 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술—그보다 좁게 ‘문학—그보다 범위 좁게 ‘시조—를 예로 들자. 이것은 결코 기계적으로 공식을 적용하려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술사는 그 자신이 예술사인 동시에 사회사요, 시조도 시조사인 동시에 사회사이기 때문이다. 시조의 예술적 일면인 음악적 감상과 언어적 연구를 등한히 볼 수 없는 대신에 그 이데올로기의 사회사적 의미를 천명하여야 한다. (…)

무릇 우리가 시조 또는 기타 고전을 연구하는 뜻은 우선 다른 역사에서와 같이 거기서 ‘생활의 발전’을 보자는 것이다. 일보 나아가서는 그가 현실에 미치는 가치 측정을 하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시조 문제는 어떠한 배경과 조건과의 내면적 관련 하에 배태·분화·성장되어 온 것이며, 또 그를 어떻게 감상하며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그런지라 현실을 초월한 연구 또는 ‘현실’ 이전의 상아탑적 연구로는 이 독자들의 요망하는 양식(糧食)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항상 ‘현실’과의 관련 하에서만 학구의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이다.(262~263면)

이 글에서 김태준은 문학 사회학적 연구 방법의 기본 시각을 논하고 있다. 사회 경제사적 접근, 보편성과 특수성의 종합적인 파악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김태준의 지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사적 연구 방법을 이론의 도식적·기계적 적용과 자각적으로 구분 짓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준은 문학의 예술성과 사회사적 성격을 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예술사=사회사가 되는 그런 사회학적 연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김태준이 조야한 변증법적 연구 방법의 경직성을 스스로 자각·극복하여 보다 유연하고 풍부한 변증법적 연구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의 대표작인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은 이 점을 입증한다.

그렇기는 하나, 김태준의 이런 사고가 실제 연구에서 어느 정도로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발전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김태준은 대체로 문학의 사회사적 맥락, 사회 변동과의 연관 등을 규명하는 데에는 뛰어났지만, 작품의 언어 예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크게 유의하지 않았던 듯하다. 따라서 예술사와 사회사의 종합은 김태준 이후로 많은 발전을 요하는 문제로 남겨져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인용문에서 확인되다시피, 김태준의 언설은 아직 이론화의 높이에 도달했다고는 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론 구성 및 방법론 구축의 견지에서 김태준의 문학 사회학적 사고의 단초들을 발전시켜 심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향후 국문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 6. 저널리즘과의 관계 문제

김태준은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의 단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그로 인해 그의 문학사 연구는 동시대 문학에 대한 비평적 발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김태준의 고전 연구는 그저 고전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특히 그가 ‘일반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고전 연구를 지향했고 보면, 그는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법하다.

실제로 김태준은 저널리즘 문제에 대해 예민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앞

에서 이미 검토한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은 그 일단을 잘 보여준다. 이미 확인했다시피, 이 글은 다산 서세 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갖는다. 1935년 7월에 정인보, 안재홍, 윤치호, 김성수, 한용운 등 44인은 ‘정다산 선생 서세(逝世) 100년 기념회’를 맡기했는데, 『동아일보』는 ‘조선사상 태양적 존재인 다산 선생의 위업을 추모하기 위하여’라며 그 기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같은 달 16일에 총 3면에 걸쳐 전면을 할애하여 정다산 서세 100년 기념 특집 기사를 실었다.<sup>9)</sup> 여기에 정인보는 「다산 선생의 일생」을 기고했는데, 「진정한 정다산 연구의 길」에서 김태준은 이 글의 몇몇 대목을 직접 인용해가며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인보 등의 다산 기념사업과 그에 대한 김태준의 비판 모두 저널리즘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김태준은 다산에 대한 종교적 숭앙을 ‘다산종(茶山宗)’이라고 비판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더구나 신문은 사회적 공기(公器)라 어느 기사가 사회적 필요 이외에서 강조되었다면 최악이다. 오늘날의 신문성이 강한 기사는 도리어 게재되지 못하고 신문사에 관계있는 수삼 거두가 토하는 허기염(虛氣焰)이거나 또는 그들의 그릇된 고등 정책으로 운용되는 때가 어디 있을까?(320면)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에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과 맞물려 조선 총독부의 기사 검열이 가혹해졌다. 이에 언론들은 민감한 기사를 자체 검열하는 한편, 일제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광고주 구미에 맞는 기사를 싣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김태준은 이런 언론 현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의의와 무관한 다산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싣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김태준은 이렇게 말한다.

www.kci.go.kr

9) 다산 서세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채관식, 「1930년대 ‘조선학’의 심화와 전통의 재발견」(연세대 석사논문, 2005); 박홍식, 「일제 강점기 신문을 통해 본 실학 연구 동향」(『동북아 문화 연구』 14,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8) 참조.

지난 16일 모지(某紙)에서는 『다산집』(茶山集)을 발간하는 분으로서 신문사에 관계된 지위를 이용하여 정다산 특집호로써 각각 전항 1면씩의 대문자—라기보다 대광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서세 100년 기(忌)를 지내고 강연까지 하였었다 하니, 『다산집』이야 훨씬 잘 팔렸을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1) 현재의 신문은 다산 전후의 반계(磻溪)·성호(星湖)·이순신·개소문의 몇백년제 몇천년제까지 광고하여 주려는가, 우리 당면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 다산 연구가 얼마나 중대성을 가진 것인가.

(2) 그들의 그와 같은 기사에서 다산의 참된 면모가 얼마나 알려졌을까 등등이다. 나는 정당한 의미에서의 다산 연구 내지 고전 일반의 연구를 대망하는 동시에 지난번 양지 특집이 단순한 ‘책광고’에 그치지 아니하기를 바란다.(320면)

‘모지(某紙)는 곧 『동아일보』다. 김태준은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다산 홍보를 비판한다. 언론의 다산 특집이 ‘광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다산 연구가 현시대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그렇게 시의성 있는 다산의 면모가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비판의 골자이다.

요컨대 김태준은 고전 연구와 저널리즘의 관계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문은 사회적 공기라 어느 기사가 사회적 필요 이외에서 강조되었다면 최악이다”라는 김태준의 말은 오늘날의 언론현실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의미심장하거니와, 오늘날 고전 연구와 저널리즘의 관계를 반성하게 한다.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은 올해의 언론현실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최근 신문지상에서 고전과 관련된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산과 같은 주요 문인 학자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대한 기사, 기타 주요 학술행사에 대한 기사, 새로 발굴된 자료에 대한 기사, 고전 연구서 및 대중서에 대한 서평, 고전 연구자의 인터뷰, 고전 연구자의 짙막한 기고문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서 저널리즘은 고전 연구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시대적 가치를 갖는 고전 문학의 면면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고전의 시대적 의의를 알리기 위한 고심 속에서 고전 연구가 저널리즘과 관계하고 있는가? 김태준이 말한 ‘광고’로 귀착되는 경우는 없는가? 김태준의 글은 이런 반성을 하게 한다.

사실 김태준 시대의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은 저항하기는 어려워도 인지하기는 쉬웠을 터이다. 이제는 고전 연구자가 저널리즘과 관계할 때 그런 식의 폭력을 의식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반면 자본의 힘은 그런 방식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기조차 한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더욱 무자각적으로 그 힘에 내속될 위험이 높다. 특히 고전은 마치 지금 이 시대와 무관한 것처럼 취급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김태준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고전 연구자가 저널리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대중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그런 관계맺음을 왜곡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연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앞으로 도 많은 고민을 요한다고 생각된다.

## 7. 향후 전망

이상으로 『김태준 문학사론 선집』에 수록된 한문학 연구 및 고전문학 일반에 대한 총론적인 글들을 ‘문제 제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김태준은 고전 문학에 대한 총체적 인식, 고전 연구의 시대적 의의, 비판적 자기인식, 고전의 정당한 인식과 계승, 고전 연구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전망, 민중적 삶에의 기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거리, 사회사적 문학 연구 방법 및 이론의 정립,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 고전 연구와 저널리즘의 관계 설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 ‘살아 있는 텍스트’이다.

요컨대 김태준에게 국문학 연구는 운동성을 갖는 행위이다. 즉, 사상운동의 일환이다. 이제 ‘인문학의 위기’는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그 위기 속에서 한국학 연구는 그나마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좋은가? 사실 한국학을 포함하여 인문학이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 현실에 대한 대응력 내지 통찰력을 잃고 파편화·쇄말화된 데 있지 않은가? 즉, 운동성을 상실했기 때문 아닌가? 현실과의 긴장 속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담을 논리화·체계화하지 못한다면, 역사적 방향성을 갖는 자기 정립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학 연구는 미래적 전망을 갖기 힘들지 않은가? 김태준은 이런 근원적인 반성을 하게 한다.

이런 견지에서 『김태준 문학사론 선집』은 여전히 ‘재발견’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김태준 선집으로, 김태준의 다양한 연구 업적을 접근 가능하게 한 공로가 인정된다. 다만 중요한 논문이 일부 누락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특히 김태준의 대표작인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이 빠진 것은 큰 흠이다. 그밖에 「이조말의 민원시(民怨詩)」, 「조선의 여류 문학」 등 애민시와 여성 문학에 대한 선구적 업적이 수록되지 않은 것도 흠이라 하겠다. 필자 생각으로는, 기왕에 교주본이 나온 『증보 조선소설사』를 제외시키고 그 대신 누락된 글들을 추가했다더라면, 김태준의 주요 연구들을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재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서평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필자에게 두 가지 후속 과제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국문학 연구사에 대한 연구이다. 국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 국문학 연구사에 대한 엄정하고 반성적이면서 포괄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문학 연구사 연구는 국문학 연구를 축으로 한 한국 근대 지성사 연구로서도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듯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홍기문, 최익한 등의 한국학 연구에 대해 고찰하는 한편, 지성사적·문제사적·지식 사회학적 견지에서 국문학 연구사 전반에 대한 연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싶다.

두 번째는 김태준 저술의 정리 작업이다. 김태준은 여러 모로 문제적 인물이지만 그 저술들에 대한 정리 작업은 아직 불충분한 듯하다. 기존의 영인본 전집인 『김태준 전집』(보고사, 1990)은 이제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인·편집에 오류가 없지 않고 현시점에서는 가독성이 다소 떨어진

다. 따라서 김태준의 글들을 집대성하여 엄밀한 교주를 가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이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김태준 선집도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만일 김태준이 총살당하지 않고 계속 학자로 활동했다면, 그 학문 세계는 어떤 진전을 이루었을까? 국문학 연구의 판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쪼록 본 서평이 김태준을 재인식하고 국문학 연구의 반성적 모색을 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선 필자 자신부터, 김태준이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유의하여 공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참고헌

1. 자료

김태준, 정해림 편, 『김태준 문학사론 선집』, 현대실학사, 1997.  
정인보, 『위당 정인보 전집』 2,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2. 단행본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체계와 논리』, 창작과비평사, 2002.

3. 논문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 양상과 특성」, 서울대 박사논문, 1998, 1~287면.  
박홍식, 「일제 강점기 신문을 통해 본 실학 연구 동향」, 『동북아 문화 연구』 14,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8, 217~237면.  
박희병, 「천태산인의 국문학연구」 상, 『민족문학사연구』 제3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248~283면.  
심경호, 「천태산인의 『조선한문학사』 변증」, 『한문교육연구』 제1호, 한국한문교육연구회, 1986, 135~151면.  
임형택, 「한국근대의 ‘국문학’과 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제46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96~215면.  
채관식, 「1930년대 ‘조선학’의 심화와 전통의 재발견」, 연세대 석사논문, 2005, 1~72면.